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변서영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 추진 배경

현대사회는 이전 시대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3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일어난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를 경험하며, 그 이면으로 고령화·저출산·양극화·환경오염·기후변화 등 다양한 도시화의 문제들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공디자인 분야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디자인은 실용성과 심미성을 갖춘 형태적인 무언가를 디자인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행태 디자인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를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용한 것이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이다.

2007년부터 도시를 성장시키는 핵심수단으로서 디자인을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서울시는 그동안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 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울의 전략을 바탕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디자인산업 진흥, 도시의 브랜딩 가치 향상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런 적극적인 디자인 행정은 세련되고 정돈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시민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겪는 많은 사회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경관 수준 향상 등 기존 디자인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생활에 중점을 둔 ‘삶의 질의 체감적 개선’이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확장·전환하였다. 즉 ‘형태 중심의 디자인’에서 ‘행태 중심의 디자인’으로 디자인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이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부각되었고, 그 첫 시작이 범죄예방 디자인이었다.

새로운 시도로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과 전개 방법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다. 또한 범죄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은 굳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는 사회문제 중 범죄라는 주제에 가장 먼저 주목하였다.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된 재건축 유보지역인 마포구 염리동은 기성 시가지에 적용된 최초의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서울시는 ‘원룸 밀집지역’,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재래시장 상권지역’ 등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총 44곳의 생활안전마을을 조성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 효과성을 평가한 결과, 중요범죄 신고건수는 최대 22% 감소하고 범죄 두려움은 최대 32% 감소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 사업의 효용성을 증명하여 주었고, 이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강조한 안전 정책으로 큰 사회적 관심과 호응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단초가 되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폭력과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디자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심한 끝에 또래관계, 지역특성, 가정환경 등 학교폭력의 내·외적 원인을 분석하여 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방학중학교의 경우 청소년

년들이 대다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로 머무를 곳이 없어 동네를 배회하는 일이 많은 사실이 관찰되었고, 놀이공간과 문화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사업 후 그 지역의 효과를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26.5% 감소하였고 주민 만족도도 최대 78.2%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주목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이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달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



© 서울시



상 범죄예방 디자인 - 강북구 삼양동의 지킴마루(커뮤니티 거점공간)와 텃밭
하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 도봉구 방학중학교 인근 통학로에 조성된 놀이문화 공간

는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화에 따른 생활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다. 우선 2014년, 본인의 집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과 인지건강을 위해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낙상방지 공간 솔루션, 건망증을 보완하는 가구 배치와 디자인, 가스차단기·화재감지기 및 누전차단기 설치, 소소하게는 냉온수 구분 스티커 부착 등 인지건강 디자인을 개발·적용하였다.

이어서 실내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노인이 바깥 활동에 점점 더 위축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실외 주거환경의 가이드를 통해 길 찾기 지원, 거주환경의 인지도 향상 및 오감을 자극하는 인지건강디자인을 개발·적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자존 능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특정 대상과 문제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 사업 시행과 더불어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확대·다변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여 왔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 90% 이상이 평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이는 현대시민의 삶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이 만성화되었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사업을 새롭게 기획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디자인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낮추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되었다.

첫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자 10대부터 60대까지 스트레스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 10대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교우관계 등으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상 인지건강 디자인 - 영등포구 신길4동 임대아파트 단지 내 기억마당(운동공간)
하 스트레스프리 디자인 - 서울 신현중학교의 스트레스프리존

교 내 방치된 교실을 활용한 스트레스프리존(Stress Free Zone)을 운영하였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스트레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공간은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를 기본으로, 명상·음악감상·컬러테라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들의 추진 방식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 대상이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

* 이미호(2017), “65세 이상 인구,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머니투데이, 9월 3일자. <http://v.media.daum.net/v/20170903120025646>

** 최은경(2016), “한국 성인 10명중 9명 ‘스트레스’ 고소독자… 고소득자 > 저소득자, 이혼자 > 기혼자”, 조선일보, 2월 1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1/2016020100488.html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전문가·기관·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성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업들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지역주민 참여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디자인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이 서울시 디자인 홈페이지(design.seoul.go.kr)를 통해 제안하면 전문가 검토 후 엠보팅 투표로 사업 주제를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사업주제에 참여할 팀원을 모집하고, 사업별로 팀원과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디자인(안)을 개발하고 구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추진된다.

또한 이에 대한 전 과정이 실시간 아카이브되고 공유됨으로써 유사한 사업의 확산 시 각기 다른 주체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였고, 이 결과는 연말 ‘디자인 토크쇼’ 행사를 통해 공유된다. 이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함께 개발한 결과물을 보완하거나 추가 개발하여 전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확산시킨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 추진 과정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이 정착되고 국내외 관심도 높아지면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법제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담론의 장이었던 국제포럼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의 증대와 전문가들의 공감에 사회

문제해결 디자인 조례 제정의 추진 동력이 되었다.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봉착한 어려움은 가변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다소 추상적인 ‘디자인’을 연결하여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을 정의하는 것이었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학계에서 합의되거나 정립된 개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조례의 필요성, 조례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구하였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외에 사례가 없는 법제화 과정이다 보니 타법과의 상관관계, 법제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학술적 정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본격적으로 조례안을 구상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목적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최초로 시도되는 조례이고 아직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과도하게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시작단계에 맞는 기본적인 체계 수립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많은 논의과정을 통해 공감된 내용을 반영하여 완성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는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마지막으로 시의회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는 크게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목적·정의·원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핵심이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은 한 번도 정리된 적 없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함으로써 서울시 디자인 정책이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추구해 나갈지를 정리하여 적용 범위를 총 여덟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①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②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③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디자인 ④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⑤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⑥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⑦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⑧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는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관련 규정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특성상 급변하는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 타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과 달리 3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 조문이 특징적인데, 서울시에서 사업 추진 시 시민은 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디자인 거버넌스 진행 과정을 강조한 것으로, 서울시 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사업

을 제안하고 선정된 주제를 진행할 시민을 모집하여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디자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조문을 통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디자인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보강하고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나가며

이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은 공공디자인의 패러다임을 확장·전환하는 의미이자 서울시 정책의 한 기조로서 지속적 추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이르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행정적 접근이 어렵던 사회문제도 디자인적 관점에서 대응·예방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들과 이



© 서울시



디자인 거버넌스 -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

를 반영한 사업과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문제는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적 기반과 선행된 사업들의 고민과 시행착오가 다른 시·도 지자체와 기관들의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 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제화된 사례가 없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조례안을 만들고 공공디자인을 시민의 삶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반면 그런 관심과 기대로 책임감과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하는 실무자들의 각오가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이다. 서울시가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을 보다 앞서서 추진하며 갖는 자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음에서 시민들에게 감히 바란다면,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정책이 모든 사회문제에 완벽한 해결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효과가 기대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단초가 제공되어 ‘진정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와 함께 조금 긴 호흡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최윤식(2014), 「2030 대담한 미래2」, 지식노마드.
- 박준휘·박준희(2016), 「2015년 서울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효과성 평가연구(서울시 용역보고서)」, 서울특별시.
- 한유경(2016), 「2015 통학로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 효과성 평가연구(서울시 용역보고서)」, 서울특별시.
- (재)서울디자인재단(2015), 「2014 서울디자인 백서」, 서울특별시·(재)서울디자인재단.